

하수도 사용료 작년 단가 기준 인하

익산시, 시민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내달 고지분부터 적용

익산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2018년도 단가 기준으로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인하된 하수도 사용료는 올해 4월 고지분(3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하수도 사용료가 인하되면 가정용은 1~10t 사용 기준 월 1400원의 인하

효과가 있다.

또 일반용의 경우 1t당 360원(50이하)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시는 업종과 물 사용량에 따른 단가 구분을 고려하면 더 큰 폭의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그 동안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2014년 6월 행정

지처부)에 따라 사용료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2016년 2월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전년도 단가 대비 25%씩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로 인해 가계 부담으로 지적돼 왔다.

시 관계자는 "인하된 하수도사용료

도 여전히 부담으로 느끼는 시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사용료 인상 계획 종료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고 어렵게 내린 결단인 만큼 시민 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수된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장 운영 및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에 사용된다.

/김재훈 기자



일본의 과오를 인정한 이치노헤 쇼코 스님이 군산시 명예시민이 된다.

일제강점기 일본 과오 인정·속죄 노력 지속

이치노헤 쇼코 스님, 군산 명예시민증 수여받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과오를 인정하고 속죄의 노력을 지속해 온 일본인 스님에게 군산시 명예 시민이 된다.

시에 따르면 25일 국내의 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이치노헤 쇼코 일본스님에게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예시민이 된 이치노헤 쇼코 스님은 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로서 군산 동국사 경내에 참

사비를 건립하고 일제강점기 시절 관련 유물을 시에 기증했으며 군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후원하는 등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과오를 널리 알리고 관계 회복에 헌신해 온 일본인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치노헤 쇼코 스님이 명예시민증 수여를 계기로 일본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병원 심뇌혈관센터, 복지부 평가 전국 1위

원광대학교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보건복지부 '2018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조직·인력·시설·장비·정보체계, 운

영·당직체계·진료과정, 환자교육·관리 등 모든 평가 지표를 100% 충족했으며 특화·지역연계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 센터는 지난 2011년 개소 후 2012년부터 2016년 평가까지 5년 연속 전국 1위에 선정되며 이어 또 다시 전국 1위 평가를 받으면서 심뇌혈

관질환의 진료·치료·재활·예방에 있어 전국 최고 센터임을 입증했다.

윤권하 병원장은 "국내 의료계의 협난한 환경을 딛고 사업 평가 1위의 평가를 올린 것은 센터장을 비롯 구성원 전체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며 "도민의 건강과 심뇌혈관 질환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활동, 24시간 365일 당직 전문의 응급진료체계 운영, 환자·보호자 교육상담 및 지속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의뢰기관과 연계한 주임상경로 개발과 보급, 취약지역 집중지원, 지역사회재활 연계 활성화 등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새내기 대학생

탐방투어 프로그램 운영

민선7기 시정운영 5대 핵심추진 사업 중 하나인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 군산시가 지역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탐방투어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군산지역 대학생 1,000여명과 함께 근대역사문화지구와 신유도 등 고군산군도, 새만금 일원 등을 탐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보건소, 시민 미세먼지 대응책 홍보활동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군산시가 미세먼지 대응책의 하나로 지역주민 대상 미세먼지 대응책 홍보에 나섰다.

이와 관련 시 보건소는 지난 22일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미세먼지 바로 알고 대응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부하고

초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 초미세먼지 발령 시 행동요령으로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 착용하기,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를 시민에게 권장했다.

특히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기, 피부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큰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에게 미세먼지 예보기준과 행동요령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반드시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충북 제천에서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홍보전

내달 1일 개최

군산시가 오는 4월 1일 충북 제천에서 '제1회 군산시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홍보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9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온 양 도시 간 상호우호 증진과 군산시 우수 농수특산물 생산 농가 및 가공업체에게 판로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군산시의 판매홍보

전은 제천시가 내륙에 위치한 점이 고려돼 수산진흥과와 협업해서 선보인다. 군산의 다양한 수산특산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

홍보전은 제천시청 직원 및 시민에게 울외장아찌, 통곡물, 한살살보리, 박대, 키조개, 간장게장 등 품질 좋은 군산 농수특산물 58종을 시중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또 행사당일 현장에서 구매한 선착순 300명에게 군산을 대표하는 신동진쌀과 한살살보리를 홍보용으로 소포장하여 증정한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군산시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이 많은 제천 시민에게 알려져 앞으로 상호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활성화 하는 계기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가 귀농귀촌 전문 멘토단을 위촉했다.

군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전문 멘토단 위촉

군산시가 지난 22일 귀농귀촌 멘토 육성교육을 완료한 교육생들을 '귀농귀촌 전문 멘토단'으로 위촉했다.

시에 따르면 현장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농업인과 귀농귀촌에 성공한 선배로 멘토를 구성했으며 콩, 딸기, 오디, 친환경농업 등 다양한 작목 상담이 가능한 농업기술멘토와 농촌 생활적응 및 지역민과의 갈등해결을 위한 상생멘토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멘토의 역할, 코칭스킬 등의 교육을 수료한 멘토단은 귀농준비 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필요한 주택 및 농지 정보, 작목 선택, 영농기술 등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멘토 여러분의 경험을 전수해 새내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소방서, 전국체전 대비 관내 시설 특별점검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오는 5월 전국소년(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군산 시내 경기장 및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소방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원

활한 피난을 위해 비상구와 피난시설 등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를 집중 단속해 필요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해 초동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